

‘도로 위 무법자’ 광주서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100여건
무면허·안전장치 미착용 적발 빈번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 위협
광주자치경찰위 속도 조정 검토

도로와 인도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도로 위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교육 강화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광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군장병인 20대 남성 B씨가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숨진 운전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100건 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단속 첫해인 2021년(5월~12월) 5804건을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적발 건수는 2022년 8224건, 2023년 9112건, 2024년 상반기(1~6월) 9970건으로 늘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올해 9327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 다음으로는 △무면허 △음주 △정

원 초과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한 상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2인 탑승 등 이용자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 보완과 제도 마련, 교육 강화 등 다방면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와 2명 이상 탑승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며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에 취약한 만큼 이용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유관기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속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교육과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상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구 “우리 동네 예산 내 손으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서구 주민 등이 29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참여로 마을자치를 완성해가기 위한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갖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법원, 2주간 하계 휴정… 각종 재판 숨고르기

내달 9일까지 2주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내에 진행되기도 한다.

이밖에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사건 접수 또는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김은지 기자

만취상태로 아파트단지 계단 돌진… 60대 불구속 입건

인명피해 없어…시설물·차량 파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취상태

로 운전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계단 등 아파트 시설물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자연로 감미료
무설탕향료